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mpact of a Sense of Social Exclusion on Will to Escape Poverty in Needy Single Mothers: with Priority Given to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이화명*, 정원철**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wa-Myung Lee(seahwamyung@hanmail.net)*, Weon-Cheol Jeong(jwc@silla.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한부모 빈곤여성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 빈 여성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높았고,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한부모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감을 완화하고, 탈빈곤 의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이웃과 친구, 그리고 친지들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 | 한부모 빈곤여성 | 사회적 배제감 | 사회적지지 | 탈빈곤 의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ocial support produced any mediating effects when needy single mothers' sense of social exclusion affected their own will to escape pover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76 poor single mothers who resided in the cities of Busan, Gimhae and Yangsan and who were in their 20s to 60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ingle mothers who lived in poverty were given less social support when they felt more excluded in the dimensions of health, relationships, production, consump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housing. Second, the needy single mothers had a more will to escape poverty when more social support was provided and less will to escape poverty when they felt more excluded in the dimensions of health, relationships, production, consumpti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housing. Third, social support produced mediating effects when social exclusion affected the will to escape povert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relieve needy single mothers' sense of social exclusion and bolster their will to escape poverty, formal social support from the nation and local community and informal social support from neighbors, friends and relatives should both be strengthened.

■ keyword : | Needy Single Mother | Sense of Social Exclusion | Social Support | Will to Escape Poverty |

I. 서론

빈곤은 개인의 사회부적응을 예측하는 데 매우 비중 있는 경제적 지표이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회문제들은 개인의 빈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빈곤은 오래 전부터 정치 경제학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학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여성의 문제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여성 가구주의 빈곤 문제는 대표적인 여성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가구주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상대적 빈곤개념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빈곤여성 가구주는 2005년 1,616,004 가구에서 2009년 1,814,008 가구로 228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 빈곤 가구주는 동일시점 대비 358천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13.6%인데 반해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40.2%로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3]. 따라서 여성 가구주의 빈곤문제가 남성 가구주의 빈곤문제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빈곤여성 가구주가 겪는 문제는 단지 '경제적 가난'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연구[4-6]에 의하면, 빈곤여성 가구주들은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문제 등을 심각하게 경험하며, 사회적 고립, 고용의 불안정 및 인적자본의 취약성, 공·사적 지원망의 부족, 자립의지의 부족, 주거의 불안정성, 그리고 기타 공식적 지원체계의 취약이 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빈곤양태는 이전에 비해 장기화, 고착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탈빈곤 의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탈빈곤 의지란 자신이 처한 빈곤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 및 인식을 내포하는 심리상태를 일컫는다. 탈빈곤 의지의 중요성을 제기한 연구[7-9]에 의하면,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자립의지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빈곤가구주 중에서 자활과 자립의지가 높은 가구주가 그렇지 않은 가구주에 비해 자활할 가능성이 약 두 배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빈곤여성 가구주의 탈빈곤 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빈곤여성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여성의 빈곤을 단지 여성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이 아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를 통해 여성의 빈곤에 관여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개입하는 전략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다. 사회적 배제의 등장배경과 그 개념의 의미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어떤 대상으로의 진입이나 그 대상과의 교류를 막는 일을 의미한다. 그동안 빈곤을 개인적 측면에서 조망해 오던 틀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에서 사회적 배제가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10] 개념에 따르면, 빈곤노인의 70%가 여성이며, 빈곤은 성별화 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빈곤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가 작용한 결과로 간주된다. 실제로 여성은 해 다양한 배제를 경험함에 따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빈곤, 실업, 주거환경의 미비, 교육기회의 결여, 의료서비스 욕구 미충족, 사회적 고립, 사회서비스 등에서 더 많은 불평등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11][12]. Aassve 등(2007)은 결혼 해체 경험이 있는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13].

한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빈곤한 개인이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심신의 어려움을 상쇄시키며, 심지어는 개인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석순(2008)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방해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망의 결여와 친지로부터의 고립을 제시하였다[14]. 또한 송승숙, 장승옥(2013)은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 저하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상실, 인맥의 부족,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부족을 들었다[15].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사회적 지지가 빈곤여성 가구주의 탈빈곤 의지를 제고하는데 인과관계

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부모 여성의 빈곤은 자활지원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곤여성의 어려움과 역경 등 문제에 초점을 두거나 심리적 대처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과 탈빈곤 의지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여성 가구주의 탈빈곤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의 활용방안 및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한부모 여성은 배우자의 사별, 이혼, 유기 등으로 인하여 전체 가구주나 개별 가구주로, 실질적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16]. 이러한 가정의 가구주로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한부모 여성을 한부모 빈곤여성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개념을 국가의 보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정, 차상위계층 가구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2014)[17]의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 모자가족은 2012년 164,953세대, 2013년 168,275세대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자가족은 2012년 47,047세대, 2013년 48,902세대로 모자가족의 25%~29%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40.2%로, 이는 남성 가구주 13.6%에 비해 빈곤율이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3]. 한부모 빈곤여성은 빈곤으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와 함께 가사 및 가족 간의 갈등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

여성가장은 남성가장에 비해 교육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아 고용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역할로 인한 시간적인 제한과 사회활동의 제한이 빈곤 상태를 장기적으로 만들게 된다. 빈곤여성 가구주의 대다수가 인적자원의 부족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배타로 인해 개인적 관계 자원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19].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부모 빈곤여성은 그들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상황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빈곤을 탈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탈빈곤 의지는 심리적으로 '의지' 자체만이 아닌 후발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빈곤을 극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2007)은 '의지'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예기 혹은 계획된 미래행동으로서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확률이라고 하였다[20]. 즉 특정행위의 수행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지에 대한 의사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지란 계획된 미래행동을 위한 신념과 태도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하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에 진입하게 되면 빈곤의 기간이 길고,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용수, 김기승(2007)은 2000년대 초반과 달리 빈곤 고착화 혹은 빈곤의 장기화 조짐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1]. 따라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빈곤극복 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폭넓게 접근하여 자립의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안중순(2001)은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자립정도의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립의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9]. 또한 김영희(1997)의 연구에서도 요보호 모자세대의 자립요인 중 모의 자립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8]. 고선재(2005)의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자활과 자립의지가 높은 가구는 빈곤 잔류율이 55%였으나 낮은 가구의 빈곤 잔류율은 97%로 나타나 빈곤 탈피에 있어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고하였다[7]. 이처럼 탈빈곤 의지는 빈곤을 극복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곤은 보다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빈곤은 소득 및 교육, 기회, 사회적 배제와 같은 비화폐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

가 있다[22]. 한부모 빈곤여성은 빈곤 및 한부모 여성이라는 두 가지 사회의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 및 불평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소외집단으로 분류된다[23-25].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26]. Pierson(2002)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박탈되는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빈곤과 저소득의 결과이며, 낮은 학력, 차별, 열악한 생활환경 등과 같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았다[27].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자발적 소외를 초래하고, 삶을 변화시킬 필요성이나 의지를 갖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소외된 상황에 순응하며 삶을 살아가게 한다[28].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주류영역에서부터 격리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참여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화의 측면으로 한정된 것이 아닌 환경, 주거, 문화, 사회권 등에 대한 접근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소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빈곤 이외에 노동 참여,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및 교류기회의 박탈 및 제한 상황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29].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원인이자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 빈곤여성의 또 다른 문제들은 환경적 요소들이다. 사회복지의 실천 현장에서는 환경속의 인간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 빈곤여성은 가족 유대관계의 약화 및 외부 지지원들의 지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로 사회적 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제공하는 대상자와, 제공의 방향, 제공의 종류에 따라 개념 범주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지의 대상자는 주변인, 가족, 친구 등으로 대별된다[30].

정경택(2003)은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환경자원이라고 하였다[31]. 김경순(2010)의 연구에서 한부모 관련 자조모임이나 사회교육 등의 참여에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이 높다고 하였다[32].

또한 박주연과 김경신(2012)의 연구에서도 한부모 여성이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안정감과 정서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한부모 빈곤여성에게 복합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심창학(2001)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경우 이를 탈피하려는 의지가 강화된다고 하였다[34]. 김지혜·성정현(2010)은 빈곤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배제를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35].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는 사회적 배제, 종속변수로는 탈빈곤 의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매개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여성가장 기간, 고용형태, 개인소득, 동거자녀 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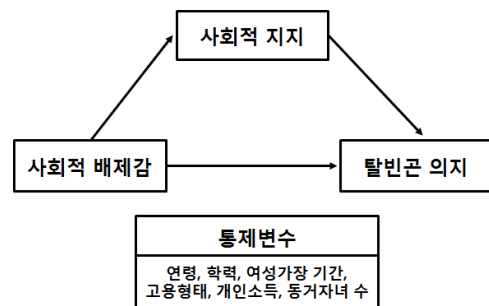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여성가장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20세에서 60세까지의 빈곤여성 가정으로 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양산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모자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의 빈곤여성 가장 376명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3.1 종속변수: 탈빈곤 의지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영란, 강철희(1999)[36]와 이은희, 최광선(2012)[37], 김혜영, 이은주, 윤홍식(2005)[38]의 도구를 토대로 한부모 빈곤여성의 실정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탈빈곤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7이다.

3.2 독립변수: 사회적 배제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영국의 사회적 배제구(SEU)이 2006년에 개발하고 김태준(2010)[39]과 성낙현(2014)[40]이 검증한 척도를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배제를 검증하기 위해 건강차원,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주거차원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의 문항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타당도 면에서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성낙현(2014)[38]의 연구에서 검증된 신뢰도는 건강차원 .93, 관계차원 .95, 생산차원 .94, 소비차원 .86, 정치참여차원 .94, 주거차원 .77으로 검증되었다. 설문내용은 1점은 '전혀 아니다'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 측정하였다.

3.3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

본 연구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41]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9이다.

3.4 인구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여성가장 기간, 고용형태, 개인소득, 동거 자녀수로 분류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제감과 사회적 지지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감과 탈빈곤 의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376명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26.1%, 20대 18.9%, 50대 이상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6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졸 이하 23.2%, 대졸 이상 13.3% 순이었다. 여성가장 기간별로는 1~2년 미만과 2~3년 미만 27.7%, 5년 이상 26.1%, 3~5년 미만 16.5%, 1년 미만 2.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31.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규직 25.3%, 시간제 아르바이트 23.1%, 기타 15.7%, 자영업 4.3% 순이었다. 개인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49.7%, 100~200만원 미만 49.5%, 200만원 이상 0.8%이었다. 동거 자녀수별로는 2명이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명 32.7%, 3명 이상 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71 18.9
	30대	143 38.0
	40대	98 26.1
	50대 이상	64 17.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87 23.2
	고등학교 졸업	239 63.6
	대학교 졸업 이상	50 13.3
여성가장기간	1년 미만	8 2.1
	1~2년 미만	104 27.7
	2~3년 미만	104 27.7
	3~5년 미만	62 16.5
	5년 이상	98 26.1
고용형태	자영업	16 4.3
	비정규직(계약직)	119 31.6
	정규직	95 25.3
	시간제 아르바이트	87 23.1
	기타	59 15.7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187 49.7
	100~200만원 미만	186 49.5
	200만원 이상	3 0.8
동거자녀수	1명	123 32.7
	2명	204 54.3
	3명 이상	49 13.0
계	376	100.0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판별타당성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판별타당성은 상이한 구성개념 간에는 측정결과에 있어서 상응하는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 즉, 동일한 방법의 지표가 적용될지라도 상이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면 이들 간의 상관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잠재변수 내의 관측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을 보인다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은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85보다 적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4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7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	1.000								
2	0.475***	1.000							
3	0.669***	0.637***	1.000						
4	-0.066	0.212***	0.167**	1.000					
5	0.393***	0.578***	0.624***	0.103*	1.000				
6	0.203***	0.357***	0.421***	0.160**	0.488***	1.000			
7	0.637***	0.656***	0.630***	0.213***	0.687***	0.532***	1.000		
8	-0.573***	-0.610***	-0.656***	-0.258***	-0.599***	-0.314***	-0.672***	1.000	
9	-0.643***	-0.655***	-0.632***	-0.226***	-0.640***	-0.480***	-0.636***	0.694***	1.000

*** p<.001

1. 건강차원 2. 관계차원 3. 생산차원 4. 소비차원 5. 정치참여차원
6. 주거차원 7. 사회적 배제감 8. 사회적 지지 9. 탈빈곤 의지

3. 사회적 배제감과 사회적 지지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

3.1 사회적 배제감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적 배제감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적 지지			
	b	β	t	p
건강차원	-0.124	-0.125	-4.833***	0.000
관계차원	-0.598	-0.643	-18.631***	0.000
생산차원	-0.195	-0.201	-4.698***	0.000
소비차원	-0.302	-0.101	-5.268***	0.000
정치참여차원	-0.087	-0.082	-3.298**	0.001
주거차원	-0.148	-0.081	-3.801***	0.000
constant	5.934		37.716***	
R2	0.878			
F(p)	441.345*** (0.000)			

p<.01, *p<.001

약 87.8%($R^2=.878$)의 설명력을 지니며, 사회적 지지에는 건강차원($p<.001$)과 관계차원($p<.001$), 생산차원($p<.001$), 소비차원($p<.001$), 정치참여차원($p<.01$), 그리고 주거차원($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에는 사회적 배제감 중 관계차원($\beta=-.643$)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생산차원($\beta=-.201$), 건강차원($\beta=-.125$), 소비차원($\beta=-.101$), 정치참여차원($\beta=-.082$), 주거차원($\beta=-.081$)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3.2 사회적 지지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지지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탈빈곤 의지			
	b	β	t	p
사회적 지지	0.300	0.894	4.745***	0.000
constant	0.822		38.589***	0.000
R2	0.799			
F (p)	1489.773*** (0.000)			

*** $p<.001$

약 79.9%($R^2=.799$)의 설명력을 지니며, 탈빈곤 의지에는 사회적 지지($\beta=.89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약 93.3%($R^2=.933$)의 설명력을 지니며, 탈빈곤 의지에는 건강차원($p<.001$)과 관계차원($p<.001$), 생산차원($p<.001$), 소비차원($p<.001$), 정치참여차원($p<.001$), 그리고 주거차원($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낮

음을 알 수 있다.

3.3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배제감이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탈빈곤 의지			
	b	β	t	p
건강차원	-0.100	-0.109	-5.703***	0.000
관계차원	-0.189	-0.221	-8.610***	0.000
생산차원	-0.448	-0.501	-15.77***	0.000
소비차원	-0.199	-0.073	-5.092***	0.000
정치참여차원	-0.223	-0.227	-12.306***	0.000
주거차원	-0.077	-0.046	-2.905***	0.004
constant	6.478		60.302***	0.000
R2	0.933			
F (p)	849.872*** (0.000)			

** $p<.01$, *** $p<.001$

그런데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탈빈곤 의지에는 생산차원($\beta=-.5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정치참여차원($\beta=-.227$), 관계차원($\beta=-.221$), 건강차원($\beta=-.109$), 소비차원($\beta=-.073$), 주거차원($\beta=-.046$)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4.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4.1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적 배제감이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 번째 회귀모델은 통제변수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371.879$, $p<.001$), 설명력은 85.8%($R^2=.858$)이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탈빈곤 의지에는 여성가장 기간($\beta=-.15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표 6. 사회적 배제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구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t	p	b	β	t	p	b	β	t	p
통제변수	연령	-0.001	-0.001	-0.020	0.984	0.044	0.038	1.738	0.083	0.019	0.016	0.751	0.453
	학력	0.097	0.050	2.075*	0.039	0.121	0.062	3.760***	0.000	0.092	0.047	2.926**	0.004
	여성가장 기간	-0.151	-0.157	-4.904***	0.000	-0.049	-0.051	-2.356*	0.019	-0.044	-0.046	-2.204*	0.028
	고용형태	1.682	0.667	25.972***	0.000	0.365	0.144	4.588***	0.000	0.240	0.095	3.012***	0.003
	개인소득	0.436	0.195	6.990***	0.000	0.059	0.027	1.327	0.185	-0.028	-0.013	-0.608	0.544
	동거 자녀수	0.010	0.006	0.237	0.812	0.030	0.017	1.027	0.305	0.035	0.020	1.262	0.208
독립변수	건강차원	-	-	-	-	-0.093	-0.102	-5.205***	0.000	-0.071	-0.077	-3.999***	0.000
	관계차원	-	-	-	-	-0.151	-0.176	-6.640***	0.000	-0.043	-0.050	-1.464	0.144
	생산차원	-	-	-	-	-0.323	-0.361	-9.534***	0.000	-0.331	-0.370	-10.153***	0.000
	소비차원	-	-	-	-	0.201	0.073	-5.032***	0.000	-0.142	-0.052	-3.570***	0.000
	정치참여차원	-	-	-	-	-0.207	-0.211	-11.046***	0.000	-0.197	-0.200	-10.868***	0.000
	주거차원	-	-	-	-	-0.087	-0.052	-3.347**	0.001	-0.113	-0.067	-4.433***	0.000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	-	-	-	-	-	-	-	-	0.202	0.220	5.525***	0.000
constant		1.812		8.768***	0.000	4.296		15.371***	0.000	4.789		19.283***	0.000
R2			0.858				0.940				0.945		
Δ R2			0.858				0.082				0.005		
F			371.879***				477.342***				478.812***		
(p)			(0.000)				(0.000)				(0.000)		
Δ F			371.879***				83.563***				30.526***		
(p)			(0.000)				(0.000)				(0.000)		

*p<.05, **p<.01, ***p<.001

영향을 미쳤고, 고용형태($\beta=.667, p<.001$)와 개인소득($\beta=.19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여성가장이 된 기간이 짧을수록, 정규직일수록, 그리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감을 투입한 두 번째 회귀모형은 약 94.0%($R^2=.940$)의 설명력을 지니며, 이는 첫 번째 모델보다 설명력이 8.2% 증가하였다($\Delta R^2=.082$).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탈빈곤 의지에는 통제변수 중 학력($\beta=.062, p<.001$)과 고용형태($\beta=.14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여성가장 기간($\beta=-.049,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모델 II에서 개인소득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독립변수인 건강차원($\beta=-.102, p<.001$)과 관계차원($\beta=-.176, p<.001$), 생산차원($\beta=-.361, p<.001$), 소비차원($\beta=-.073, p<.001$), 정치참여차원($\beta=-.211, p<.001$), 주거차원($\beta=-.052,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에 의하면,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한 상태

에서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수행된 회귀모델은 사회적 배제감이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모델 역시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478.812, p<.001$), 설명력은 94.5%($R^2=.945$)이었고, 이는 두 번째 모델보다 설명력이 0.5% 증가하였다($\Delta R^2=.005$). 통제변수는 모델 II와 마찬가지로 탈빈곤 의지에 학력($\beta=.047, p<.01$)과 고용형태($\beta=.095, p<.001$)는 통계적으로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여성가장 기간($\beta=-.046,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소득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델 III에 의하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 중 관계차원을 제외한 건강차원($\beta=-.077, p<.001$)과 생산차원($\beta=-.370, p<.001$), 소비차원($\beta=-.052, p<.001$), 정치참여차원($\beta=-.200, p<.001$), 주거차원($\beta=-.067, p<.001$),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생산차원, 소비

차원, 정치참여차원, 주거차원에서 배제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2 Sobel Test 결과

사회적 배제감이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p
사회적 배제감 → 사회적 지지 → 탈빈곤 의지	-25.75***	0.000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test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25.75, p<.001$). 따라서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배제가 높아지면 사회적 지지는 낮아진다고 보고한 차명화(2015)[4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해 노력을 할지라도 사회적 지원체계로부터 무관심과 소외감을 경험할 경우 이에 대한 노력의지가 약화되고, 자립의지 역시 감소한다고 보고한 박용순(2001)[4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돕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극복과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Barrera(1986)[45]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는 한부모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빈곤탈출 과정에서 자립의지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의 격려와 수용을 통한 사회적지지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3][40]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적음에 따라 사회적 배제가 빈곤을 탈피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연령과 성차별이 존재하여 여성들은 공식적인 노동경험에서의 배제와 가족 내 역할에 의한 장기간의 직업이력 상실로 취업대상자가 되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들의 자립의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사회적 배제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원(2012)[46], 박용순(2001)[44], 이상록, 진재문(2003)[47]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배제감을 경험하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부모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감을 완화시키고, 탈빈곤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친구와 친지들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빈곤을 해결하려는 의지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배제감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 빈곤여성의 탈빈곤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부모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감을 해결하고, 탈빈곤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원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 및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멘토 활동을 통하여 지지를 받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사회적 배제감을 완화하고 탈빈곤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최근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부모의 빈곤 가구주의 특성상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에 비해 소득수준 및 빈곤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빈곤 남성 가구주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13.

[2] 김종숙, *여성고용활성화를 통한 여성빈곤의 완화와 공생발전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김수영, *빈곤여성의 역경극복과정: 강점관점 사례관리 참여자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 송은경, *빈곤여성가구주의 아동양육부담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오승환, “결손가족 청소년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일반가족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 제4호, pp.53-80, 2001.

[6] 박영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7] 고선재, *국민기초수급자의 빈곤탈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서대문구지역 대상자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김영희, *생활보호대상자의 빈곤 탈피여부와 탈피기간에 관한 연구: 중계3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9] 안종순,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동구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 D. Pearce,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Vol.11, pp.28-36, 1978.

[11] 김안나,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 제29호, pp.145-168, 2007.

[12] 석재은, 김태운, 양진운,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제2007권, 제2호, pp.715-718, 2007.

[13] A. Aassve, F. C. Billari, S. Mazzucco, and F. Ongaro, “Leaving home: a comparative analysis of ECHP dat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12, No.4, pp.259-275, 2003.

- [14] 김석순, *자활사업참여자들이 인지하는 '자활'의 의미*,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5] 송승숙, 장승옥, “빈곤여성가장의 자활의지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제 2013호, pp.1403-1424, 2013.
- [16] 신수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7]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14.
- [18] 이태진, 김미곤, 김혜승, 박신영, 이영환, 홍인옥, 최현수, 김선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19] 구인회,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2호, pp.351-374, 2005.
- [20] 이정원,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1] 조용수, 김기승,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실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사회보장연구회보장학회, 제23권, 제3호, pp.101-124, 2007.
- [22] 김교성,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1호, pp.215-240, 2010.
- [23] 권신영, *빈곤 여성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자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입과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4] 김정현, *가난한 이혼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기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5] 정미숙,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가족경험과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6] 박병현, 최선미,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45호, pp.185-219, 2001.
- [27] J. Pierson,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2002.
- [28] 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 실천가 대상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pp.291-316, 2010.
- [29] 전병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37-247, 2012.
- [30] 정일영,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164-177, 2013.
- [31] 정경택,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12권, 제2호, pp.151-162, 2003.
- [32] 김경순, *이혼 한부모 여성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3] 박주연, 김경진,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1호, pp.23-46, 2012.
- [34]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4호, pp.178-208, 2001.
- [35] 김지혜, 성경현, “빈곤여성 가장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2권, 제1호, pp.65-93, 2010.
- [36] 박영란, 강철희,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호, pp.91-116, 1999.
- [37] 이은희, 최광선, “한부모 여성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983-2990, 2012.

- [38] 김혜영, 이은주, 윤홍식,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제4권, 제1호, pp.5-51, 2005.
- [39] 김태준,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0] 성낙현,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배제가 자립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자본,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연구: 충청북도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41]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42]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비엔엠북스, 2005.
- [43] 차명화,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44] 박용순, *빈곤과 자립*, 학지사, 2001.
- [45] M. Barrera,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No.4, pp.413-445, 1986.
- [46] 이정원, *소득부위 및 부채상환비율에 따른 가계 소비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47] 이상록, 진재문,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2호, pp.241-272, 2003.

저 자 소 개

이 화 명(Hwa-Myung Lee)

정회원



- 현재: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정 원 철(Weon-Cheol Jeong)

정회원



- 2002년 8월: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방법론 철학박사
- 현재: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회장
- 현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상담, 교류분석상담, 정신건강